

ICT산업 2016년 1분기 동향

I. ICT산업 수출 현황	1
II. 반도체 산업동향	5
III.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8
IV. 휴대폰 산업동향	11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 요약 >

< ICT산업 수출 현황 >

□ 2016년 1분기 ICT 수출은 세계시장 성장 둔화, 경쟁심화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한 372.9억 달러

- 휴대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총 수출액은 감소
 - 휴대폰 수출은 전략 스마트폰(갤럭시S7, G5) 출시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61.6억 달러를 달성
 - 반도체 수출은 수요 감소, D램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한 139.7억 달러를 달성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수요 부진, 중국의 증설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6.6% 감소한 60.9억 달러를 달성

< 반도체 >

□ 1분기 D램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8.7% 감소한 85.6억 달러

- 전통적 비수기이며 공급과잉으로 D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규모 축소
-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46.4%, SK하이닉스 27.1%, 마이크론 18.5% 순으로 3강 체제를 유지
- 주요 기업들의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미세공정 기술 우위 확보 여부에 따라 수익성은 양극화
 - 삼성전자는 20나노 공정 확대로 높은 영업이익률(40%)을 유지하였으나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은 1.2%

□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칭화유니그룹은 Western Digital 인수를 철회하여 동사의 시장 진출이 지연될 전망

< 디스플레이 >

□ 1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154.3백만대

- 최대 수요처인 TV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7.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
- 대형 LCD 패널시장은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BOE가 5위에서 2위로 도약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5위로 밀림

□ 대만 폭스콘은 일본 샤프 인수('16.2)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 휴대폰 >

□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하여 역대 최저 성장률을 보임

- 1위 삼성전자와 2위 애플의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고 중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됨
-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 주기가 단축되고 선두기업은 중저가 제품, 중국기업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확대

□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기업들의 독자 모바일 AP (Application Processor) 출시 증가

I. ICT산업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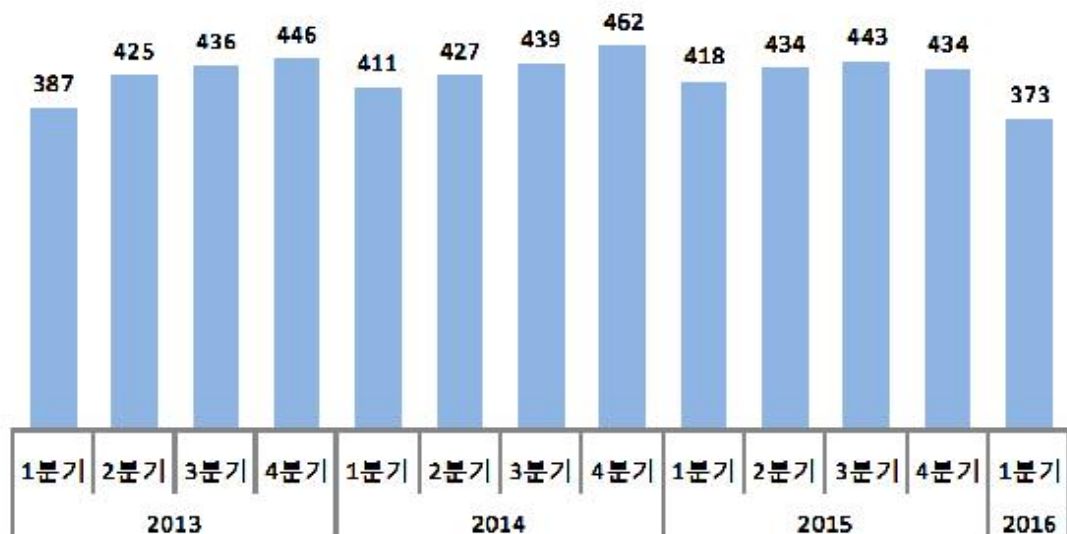
□ 2016년 1분기 ICT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한 372.9억 달러

- 휴대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수출 감소율은 완화됨

* 수출증감율(%): ('15.12)△14.7% → ('16.1)△17.8% → (2)△9.8% → (3)△5.0%

< ICT산업 분기별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61.6억 달러

- 전략 스마트폰(갤럭시S7, G5) 출시로 월별 휴대폰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
-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24.1억 달러로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수출을 견인
-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한 37.6억 달러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일부 해외거점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

* 휴대폰 수출증감율(%): ('15.12)10.5% → ('16.1)△7.3% → (2)2.8% → (3)7.9%

-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화
 -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4% 감소한 10.4억 달러,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0.1% 증가한 20.0억 달러

< 휴대폰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휴대폰	금액	66.0	65.0	65.0	68.4	60.8	73.2	71.9	84.4	61.6
	%	26.0	1.6	7.3	△4.7	△7.9	12.6	10.6	23.4	1.2
스마트 폰	금액	34.1	29.8	29.5	29.4	21.4	29.8	24.4	27.8	24.1
	%	33.2	△11.0	7.3	△26.7	△37.2	△0.7	△17.3	△5.1	12.6
부분품	금액	31.4	34.3	35.2	38.6	39.5	43.3	47.4	56.5	37.6
	%	24.6	17.9	10.3	24.9	25.8	26.2	34.7	46.4	△4.8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한 139.7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모두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월별 수출 감소율은 완화되고 있음
 - 메모리반도체(74.9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9.4%↓)는 D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
 - 시스템반도체(49.4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2.3%↓)는 후공정 업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
- * 반도체 수출증감율(%): ('15.12)△17.5%→('16.1)△13.9%→(2)△12.8%→(3)△1.8%
- 중국(홍콩 포함)은 반도체 최대 수출대상국(62.0%)으로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한 86.7억 달러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반도체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금액	%	금액	%	D램		낸드		금액	%
13.1분기	125.3	4.8	48.0	1.1	25.3	△1.9	7.5	47.1	61.5	9.0
2분기	139.2	12.1	66.9	27.7	34.1	18.8	9.3	116.3	54.3	△0.9
3분기	152.0	21.5	68.8	48.9	36.5	46.0	9.1	78.4	66.1	7.5
4분기	154.9	14.1	71.4	51.9	41.7	79.7	9.9	57.1	67.8	△7.3
14.1분기	143.6	14.6	74.4	55.0	42.9	69.6	9.2	22.7	53.7	△12.7
2분기	148.8	6.9	81.8	22.3	45.8	34.3	10.8	16.1	51.3	△5.5
3분기	158.9	4.5	90.2	31.1	53.2	45.8	9.9	8.8	53.2	△19.5
4분기	175.2	13.1	93.5	31.0	58.7	40.8	9.8	△1.0	67.0	△1.2
15.1분기	154.1	7.4	82.7	11.2	53.5	24.7	7.7	△16.3	56.4	5.1
2분기	155.8	4.7	81.7	△0.2	50.0	9.1	6.6	△38.9	59.6	16.1
3분기	164.5	3.5	90.8	0.7	47.6	△10.5	6.7	△32.3	57.8	8.6
4분기	154.8	△11.6	82.7	△11.5	41.6	△29.1	6.1	△37.8	57.6	△14.0
16.1분기	139.7	△9.3	74.9	△9.4	39.6	△26.0	6.4	△16.9	49.4	△12.3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6% 감소한 60.9억 달러

- 수요 부진,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패널단가가 하락하여 수출 감소세 지속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한 13.2억 달러를 달성

* 디스플레이 수출증감율(%): ('15.12) △24.0%→('16.1) △30.7%→(2) △23.6%→(3) △25.2%

- 중국은 디스플레이 최대 수출대상국(76.3%)이며 중국기업 성장으로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5% 감소한 46.5억 달러를 시현

<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패널	금액	67.1	70.5	74.8	79.9	63.4	64.8	75.0	71.3	60.9
(증감률)	%	△12.3	△3.6	4.8	△1.1	△5.5	△8.1	0.2%	△10.1	△26.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ICT 무역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19.4% 감소한 156.2억 달러

- 반도체(47.8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49.9억 달러), 휴대폰(40.0억 달러), TV(8.1억 달러)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흑자를 유지

< IC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 산업	ICT 산업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1분기	1,348.5	353.9	-5.5	1,336.7	190.9	-4.8	11.8	163.0
	2분기	1,401.3	378.5	-5.0	1,304.3	188.9	-8.0	97.0	189.6
	3분기	1,331.3	398.6	-0.5	1,256.5	192.5	-7.2	74.7	206.1
	4분기	1,397.7	421.4	7.4	1,298.3	207.2	2.6	99.4	214.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4.4	418.3	0.3	1,118.4	224.3	7.4	216.0	194.0
	2분기	1,351.4	434.1	0.7	1,105.4	218.9	1.1	246.0	215.2
	3분기	1,284.9	442.8	-0.3	1,083.7	229.9	6.2	201.2	212.9
	4분기	1,300.9	433.7	-6.2	1,060.6	240.1	0.7	240.3	193.5
	연간	5,271.6	1,728.9	-1.9	4,368.1	913.2	3.6	903.5	815.6
2016	1분기	1,159.7	372.9	-10.9	936.1	216.7	-3.4	223.6	1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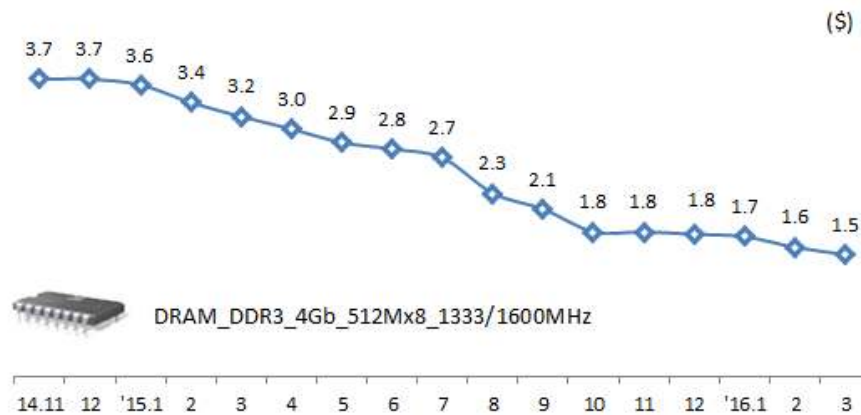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II. 반도체 산업동향

□ 1분기 세계 D램¹⁾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8.7% 감소한 85.6억 달러

- 공급과잉으로 D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규모 축소
 -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노트북 출하량 감소(전년동기 대비 19.0% ↓), 스마트폰 수요 둔화(0.2% ↑) 등으로 수요 감소
 - 수요 감소로 D램 가격은 1년전 대비 약 53% 하락

< D램 가격 동향 >



출처: DRAmExchange, 산업통상자원부

-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46.4%, SK하이닉스 27.1%, 마이크론 18.5% 순으로 3강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삼성전자와 대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증가
 - 마이크론은 20나노 공정의 낮은 수율로 시장점유율이 4.0%p 하락하였으며 마이크론의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3.3%p 증가
 - 대만기업인 Nanya, Winbond는 설비증설을 통해 전년동기 대비 시장점유율이 각각 0.5%p, 0.4%p 증가

1)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동작을 가하지 않으면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며 가격이 낮아 대용량 메모리로 사용됨

< 세계 D램 시장 규모 및 점유율 >

(단위: 백만 달러)

	회사	매출액			시장점유율	
		'16. 1분기	'15. 1분기	증감	'16 1분기	'15. 1분기
1	삼성전자	3,972	5,176	-1,204	46.4%	43.1%
2	SK하이닉스	2,317	3,281	-964	27.1%	27.3%
3	마이크론	1,588	2,697	-1,109	18.5%	22.5%
4	Nanya	315	381	-66	3.7%	3.2%
5	Winbond	157	166	-9	1.8%	1.4%
6	Powerchip	100	93	7	1.2%	0.8%
	기타	113	215	-102	1.3%	1.8%
	총합	8,562	12,010	-3,448	100%	100%

출처: DRAMExchange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은 73.5%로 '15년 3분기에 74.7%로 정점을 찍은 후 2분기 연속 소폭 감소
 - * 양사 점유율 합계: ('14.3분기) 68.2%→(4분기) 69.1%→('15.1분기) 70.4%→(2분기) 72.8%→(3분기) 74.7%→(4분기) 74.3%
- 주요 기업들의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미세공정 기술 우위 확보 여부에 따라 수익성은 양극화
 -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3.3% 감소했으나 D램 생산량의 약 80%를 20나노2) 공정으로 생산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40%)을 유지
 -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9.4%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14%로 소폭 하락
 - 2분기부터 20나노 제품을 본격 양산할 계획이므로 향후 수익성은 제고될 전망
 - 마이크론은 공정기술 열위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1%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15년 4분기 8.5%에서 '16년 1분기 1.2%로 급락
 - 20나노 공정 양산 초기 단계로 원가절감 효과는 아직 미미

2) 10억분의 1미터.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나타내며 낮은 숫자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처리 속도가 빠름.

□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칭화유니 그룹은 미국 Western Digital 인수를 철회하여 동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이 지연될 전망

- 칭화유니그룹은 ‘중국 1위, 세계 3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기술보유 기업 인수를 추진
 - 동사는 D램 시장점유율 3위인 마이크론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이에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음(‘15.7)
- 칭화유니그룹은 HDD³⁾ 기업인 Western Digital 인수를 추진했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조사를 이유로 이를 철회(‘15.9)
 - Western Digital이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강점을 보유한 SanDisk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자 칭화유니그룹이 인수 계획을 발표(‘15.7)
- 동사는 기업 인수 뿐만 아니라 자체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칭화홀딩스의 반도체사업 진출 현황 >

반도체 설계	· 중국 스프레드트럼 인수(‘13) · 중국 RDA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수(‘14)
시스템반도체	· 대만 미디어텍 인수 제안(‘15)
메모리반도체	· 10조원 투자해 자체 공장 건설 예정
패키징	· 대만 파워텍 지분 25% 인수(‘15)
장비	· 미국 HP 자회사 H3C 지분 51% 인수(‘15)

출처 : 한국경제

3) Hard Disk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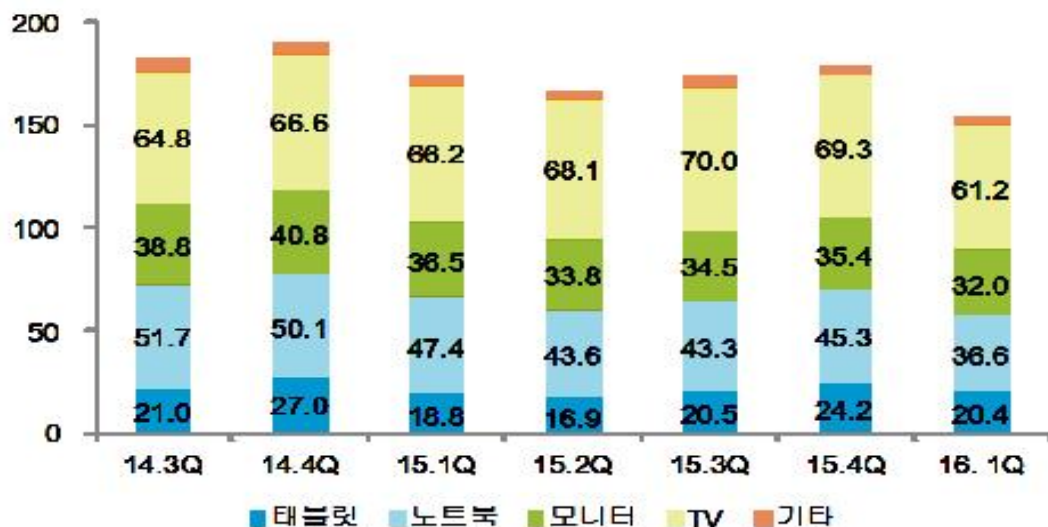
III.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 1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154.3백만대

- 최대 수요처인 TV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7.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를 시현
- 노트북, PC 수요 둔화에 따라 노트북용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2.7%, 모니터용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

<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

(단위: 백만대)



주: 태블릿은 9인치 이상

출처: IHS

□ 대형 LCD 패널시장은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BOE가 5위에서 2위로 도약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5위로 밀림

- 중국 BOE는 공격적인 증설로 대형 LCD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2위에 진입
- BOE는 32인치 패널 공급을 확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17.3%로 확대

- 삼성디스플레이는 신공정 수율⁴⁾ 문제를 겪으면서 출하량이 감소해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하락

<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점유율 >

(단위: 백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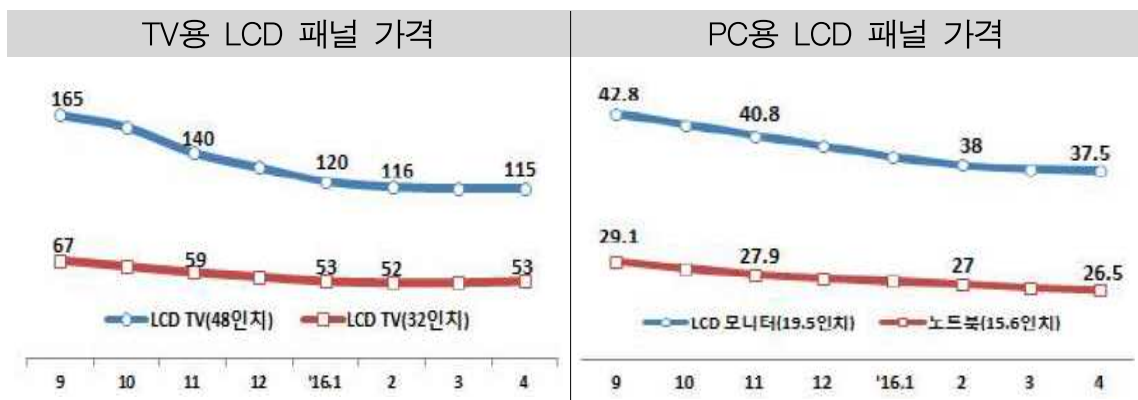
	회사	2016. 1분기		2015. 1분기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LG디스플레이	37.5	24.3%	41.5	23.9%
2	BOE	26.7	17.3%	18.1	10.4%
3	AUO	24.4	15.8%	26.8	15.4%
4	Innolux	22.9	14.8%	31.6	18.2%
5	삼성디스플레이	22.4	14.5%	33.4	19.2%
	기타	20.4	13.3%	22.3	12.9%
	합계	154.3	100.0%	173.7	100.0%

출처: IHS

□ 대만 지진('16.2)으로 인한 대만기업의 가동 일시 중단, 디스플레이 수급 개선으로 패널 가격 하락세는 둔화됨

- 대형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1분기에는 패널 가격 하락세 둔화
- 리우 올림픽(8월)을 앞두고 신모델 TV가 출시되면서 2분기부터는 패널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 LCD 패널 가격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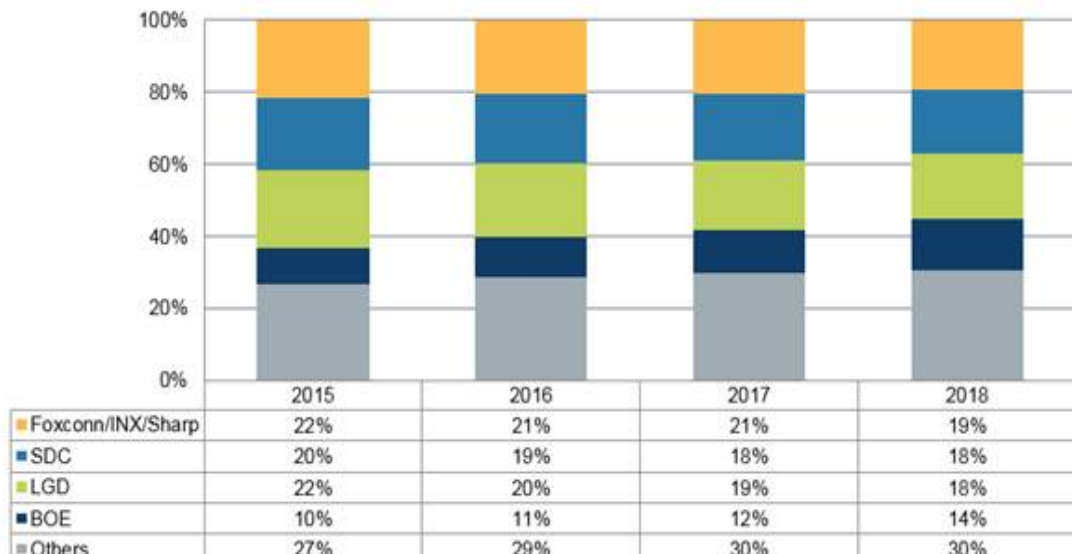
출처: IHS,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 총생산량 대비 불량품 아닌 제품의 비율

□ 대만 폭스콘은 일본 샤프 인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 아이폰 제조사로 유명한 폭스콘은 샤프 인수('16.2)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을 확보
 - 폭스콘은 자회사로 세계 3위 디스플레이 회사 Innolux를 보유하고 있으며 샤프 인수로 인해 생산능력은 세계 1위 LG디스플레이를 추월
 -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2016년 사별 LCD 생산비중은 폭스콘이 21%로 LG디스플레이(20%), 삼성디스플레이(19%)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주요 기업별 LCD 디스플레이 생산 비중 >



주 : 먼적기준

출처 : IHS

- 폭스콘은 샤프 인수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풀 라인업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샤프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OLED 시장 진입이 예상됨
 - 샤프는 10세대 생산라인을 보유하여 상대적으로 생산효율이 낮은 8세대 라인이 주력인 국내기업에게 위협요인
 - 향후 3년('16.7~'19.6)동안 총 2.7조원을 OLED 기술개발 및 생산에 투자하여 '18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
 - 폭스콘과 애플의 우호적인 관계 고려시 폭스콘이 아이폰용 패널 공급 확대할 경우 LG디스플레이와 경쟁 심화

IV. 휴대폰 산업동향

□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

-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한 334.9 백만대로 역대 최저 성장률을 보임
- 선진국 시장 포화, 스마트폰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부진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 2016년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

(단위: 백만대)

	회사	2016. 1분기		2015. 1분기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81.9	24.5%	82.4	24.6%	-0.6%
2	애플	51.2	15.3%	61.2	18.3%	-16.3%
3	화웨이	27.5	8.2%	17.4	5.2%	58.4%
4	오포	18.5	5.5%	7.3	2.2%	153.2%
5	비보	14.3	4.3%	6.4	1.9%	123.8%
	기타	141.5	42.3%	159.8	47.8%	-11.4%
	합계	334.9	100.0%	334.4	100.0%	0.2%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 삼성전자, 애플의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중국 오포와 비보가 레노버와 샤오미를 밀어내고 4위와 5위에 진입

- 삼성전자는 1위를 유지하였으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한 8,190만대
- 중국에서 입지가 축소*되었으나 3월 11일에 출시한 갤럭시S7/S7 엣지의 인기로 출하량 감소 둔화

* 중국시장 순위: ('13) 1위→('15) 4위→('16.1분기) 5위권 밖

- 갤럭시S7 구입시 한 대를 더 주는 '1+1' 이벤트(미국), 갤럭시 클럽(스마트폰 구매 1년뒤 차기 후속 스마트폰으로 교체) 도입 등 마케팅 활동 강화의 영향

-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6.3% 감소한 5,120만대
 - 아이폰6S의 판매 부진으로 상위 5개 사업자중 출하량 감소폭이 가장 큼
 - 3월말에 중저가폰인 아이폰SE를 출시하여 2분기 출하량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음
- 중국 기업이 3~5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전략을 채택한 오포, 비보가 약진
 - 화웨이는 3위로 강한 중국 시장 지배력과 유럽 시장에서 선전으로 전년대비 58.4% 증가한 2,750만대를 출하
 - 중국 시장이 성숙하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⁵⁾로 저가 중심인 샤오미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오포, 비포가 약진
 - 오포는 MP3 플레이어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음향, 영상 분야의 강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차별화하면서 4위에 진입
 - 오포와 비보는 중국 가전회사 BBK 산하 회사로 양사 출하량의 합은 3,280만대로 화웨이의 출하량보다 많아 국내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 애플의 출하량 감소는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LG디스플레이(패널), SK하이닉스·삼성전자(모바일용 반도체), LG이노텍(카메라 모듈), LG화학(배터리) 등이 영향을 받음
 - LG디스플레이의 최대 고객사는 애플(매출의 35%)이며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7% 감소
 - 애플은 국내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로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4.0% 감소
 - LG이노텍 매출중 애플의 비중은 30%를 차지하면서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2.5% 감소

5) 중국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13년 207달러에서 '15년 257달러로 상승

<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 실적 >

(단위: 억원)

회사	'16. 1분기		'15. 1분기		전년동기비 증감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LG디스플레이	59,892	395	70,223	7,439	-14.7%	-94.7%
SK하이닉스	36,560	5,620	48,183	15,885	-24.0%	-64.6%
LG이노텍	11,950	4	15,413	690	-22.5%	-99.4%
LG화학	48,741	4,577	49,150	3,618	-0.8%	26.5%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해 신제품 출시 주기가 단축되고 선두기업은 중저가 제품, 중국기업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 확대

-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수요 창출을 위해 신제품 출시 주기가 단축되고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저가 제품을 강화
 - 삼성전자는 갤럭시 S7/S7 엣지를 전년 신제품 출시일('15.4.10) 대비 약 한달 빠른 3월 11일에 출시하였으며 가격대별로 중저가 제품을 세분화하여 A, J 시리즈에 이어 C 시리즈를 출시
 - 애플은 매년 9월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하였으나 신흥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저가 폰인 아이폰 SE를 3월에 출시
- 중국기업들은 자국 시장 포화로 프리미엄 제품을 강화
 - 화웨이는 P9, P9 플러스에 라이카 카메라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주력

< 2016년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사양 >

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화웨이	애플
제품명					
	갤럭시 S7 / S7엣지	G5	미5	P9	iPhoneSE
출시일	2016.3.11.	2016.3.31.	2016.3.1.	2016.4.9.(예상)	2016.3.31.
AP	스냅드래곤 820 / 엑시노스 8890 옥타	스냅드래곤 820	스냅드래곤 820	기린 950 프로세서	A9 칩
디스플레이	5.1인치 S-AMOLED	5.3인치 IPS LCD	5.15인치 IPS LCD	5.2인치 풀HD	4인치
카메라	1200만 / 500만	1600만+800만 듀얼 / 800만	1600만 / 400만	1200만 화소 듀얼	1200만 화소
배터리	일체형 3000mAh	탈착식 2800mAh	일체형 3000mAh	일체형 3900mAh	일체형 1642mAh
기타	방수·방진	8개 모듈, 타입 C USB	-	6GB 램	애플페이, 라이프보토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기업들의 독자 모바일 AP⁶⁾ 출시 증가

- 모바일 AP는 대다수 기업이 퀄컴에 의존해왔으나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애플이 A시리즈를 개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
 - 퀄컴은 스마트폰 가격의 2.5~5.0%를 로열티로 수취하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화웨이, 샤오미, LG전자 등도 자체 설계 AP를 출시하였거나 출시할 계획
 - 화웨이는 Kirin 시리즈를 출시하고 관계사를 통해 위탁생산하면서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을 제고
 - 샤오미는 반도체 IP기업인 ARM의 표준 코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자체 AP를 5월에 공개할 계획
- 기업들이 독자 모바일 AP를 개발함에 따라 퀄컴, 삼성전자 등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전망
 -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점유율은 퀄컴 45.5%, 미디어텍 17.4%, 애플 16.7%, 삼성전자 7.7% 순

6) Application processor